문화재청 공고 제2018-34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11. 22.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기사계첩(耆社契帖)	1첩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제진언집 목판 (諸眞言集 木板)	44판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2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 2책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3	고려 천수관음보살도 (高麗 千手觀音菩薩圖)	1폭	이** (삼성문화재단)

다.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국보 지정 예고】

□ 기사계첩(耆社契帖)

○ 현 지정현황 : 보물 제929호(1987.12.26 지정)
○ 명 칭 : 기사계첩(耆社契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 1첩
○ 규 격 : 전체 79.0×59.5cm, 화면 53.2×37.3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조성연대 : 1719~1720년(숙종 45~숙종 46)
○ 제 작 자 : 김진여(金振汝), 장태흥(張泰興), 박동보(朴東普), 장득만(張得萬), 허숙(許俶), 이이방(李義芳)
○ 사 유

'기사계첩'은 1719년(숙종 45) 59세가 된 숙종이 태조 이성계의 전례를 따라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것을 기념한 행사에 참여한 관료들이 계(契)를 조직해 만든 계첩(契帖)이다. 행사는 1719년에 실시되었으나 계첩은 초상화를 그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1720년(숙종 46)에 완성되었다. 기로소는 70세 이상, 정2품 이상 직책을 가진 노년의 문관(文官)들을 우대하던 기관이다.

계첩은 기로신 중의 한 명인 좌참찬 임방(任埅, 1640~1724)이 쓴 계첩의 서문과 경희궁 경현당(景賢堂) 사연(賜宴) 때 숙종이 지은 어제(御製), 대제학 김유(金楺, 1653~1719)의 발문, 각 의식에 참여한 기로신들의 명단, 행사 장면을 그린 기록화, 기로신 11명의 명단과 이들의 반신상 초상화, 기로신들이 쓴 축시(祝詩), 계첩을 제작한 실무자 명단으로 구성되었다.

행사 장면은 경희궁 흥정당(興政堂)에서 기로소로 어첩을 봉안하러 가는 행렬을 그린 <어첩봉안도(御帖奉安圖)>, 이튿날인 2월 12일 기로신들이 경희궁 숭정전에서 진하례를 올리는 장면을 그린 <숭정전진하전도(崇政殿進賀箋圖)>, 4월 18일 경현당에서 기로신들에게 내린 친림사연의 광경을 그린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 경현당 석연에서 하사받은 은배(銀盃)를 받들고 기로소로 돌아가는 기로신들의 행렬을 묘사한 <봉배귀사도(奉盃歸社圖)>, 기로신들이 기로소에서 연회를 행하는 모습을 그린 <기사사연도(耆社私宴

圖)> 가 순서대로 그려졌다. 계첩에 수록된 그림과 기로신들의 초상화는 당대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던 도화서 화원 김진여(金振汝), 장태흥(張泰興) 등이 그린 것으로, 화려한 채색과 섬세하고 절제된 묘사, 명암법을 적절하게 사용해 사실성이 뛰어난 얼굴 표현 등 조선 후기 궁중회화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18세기를 대표하는 궁중행사도 중 하나로, 후대 궁중회화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평가된다. 제작 당시의 원형을 거의 상실하지 않았고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분명하며 그림의 완성도나 기법이 매우 높아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보물 지정 예고】

□ 제진언집 목판(諸眞言集 木板)

○ 현 지정현황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호('신흥사경판' 명칭으로 1971.12.16 지정)
○ 명　　칭 : 제진언집 목판(諸眞言集 木板)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
○ 수　　량 : 44판
○ 규　　격 : 불정다라니심경 18.0×13.2cm, 제진언집 목록 18.0×13.2cm, 진언집 18.0×28.2cm
○ 재　　질 : 나무
○ 판　　종 : 목판
○ 조성연대 : 1658년(효종 9)
○ 사　　유

'제진언집 목판'은 1658년(효종 9) 강원도 신흥사에서 개판한 목판으로,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 『제진언집목록(諸眞言集目錄)』, 『진언집(眞言集)』 등 3종으로 구성되었다. 목판 말미에 "順治十五年 戊戌(1658), 六月下澣日, 江原道襄陽都護府地, 雪岳山神興寺, 重刊"이라는 간행기(刊行記)를 통해 신흥사에서 중간(重刊)한 목판임을 알 수 있다. 처음 판각은 1569년(선조 2)에 안심사(安心寺)에서 이루어졌으나 안심사본 목판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흥사 중간 목판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에 해당한다.

한글, 한자, 범어(梵語)가 함께 기록된 희귀한 사례에 속하며 16~17세기 언어학 및 불교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또한 신흥사가 동해안 연안과

가까이 인접해 있어 수륙재(水陸齋) 등과 관련된 불교의례가 빈번하게 시행된 사실을 감안할 때 강원도 지역의 신앙적 특수성과 지리·문화적인 성격, 그리고 지역 불교의 흐름을 살펴 볼 수 있는 원천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명　　칭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목1동 25-4
○ 수　　량 : 7권 2책
○ 규　　격 : 26.8×18.0cm, 반곽 21.5×14.2㎝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405년(태종 5) 경 판각, 후쇄본(後刷本) 개장
○ 사　　유

'묘법연화경'은 조선 초기 명필(名筆) 성달생(成達生)·성개(成槪) 형제가 부모의 명복을 기원할 목적으로 법화경을 정서(精書)한 판본(板本)을 바탕으로 1405년(태종 5) 전라도 안심사(安心寺)에서 도인 신문(信文)의 주관으로 간행한 불경이다.

7권 2책으로 구성된 완질본으로 권4에는 변상도(變相圖)가 6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고 판각도 정교하다. 특히 안심사판 『묘법연화경』의 변상도 안에 그려져 있는 신중상(神衆像)은 구도가 크고 정교한 판각으로 다른 법화경에 있는 변상도 비해 높은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체에 걸쳐 구결(口訣)이 표기되어 있으며, 두주(頭註) 형태와 한글 현토(懸吐) 등 조선 초기 국어 사용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향후 심도 있는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기 보물 지정본과 비교하여 완질로 구성되었고 비교적 초기 간행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발문을 통해 조선 초기 불경의 간행 방식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서지학 및 불교사 연구에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 고려 천수관음보살도(高麗 千手觀音菩薩圖)

○ 명　　칭 : 고려 천수관음보살도(高麗 千手觀音菩薩圖)
○ 소유자(관리자) : 이**(삼성문화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60-16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176.0×72.8cm, 화면 93.8×51.2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조성연대 : 고려 14세기
○ 사　　유

‘고려 천수관음보살도’는 천개의 손과 손마다 눈이 달려 있는 보살의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의 자비력을 극대화한 고려시대 불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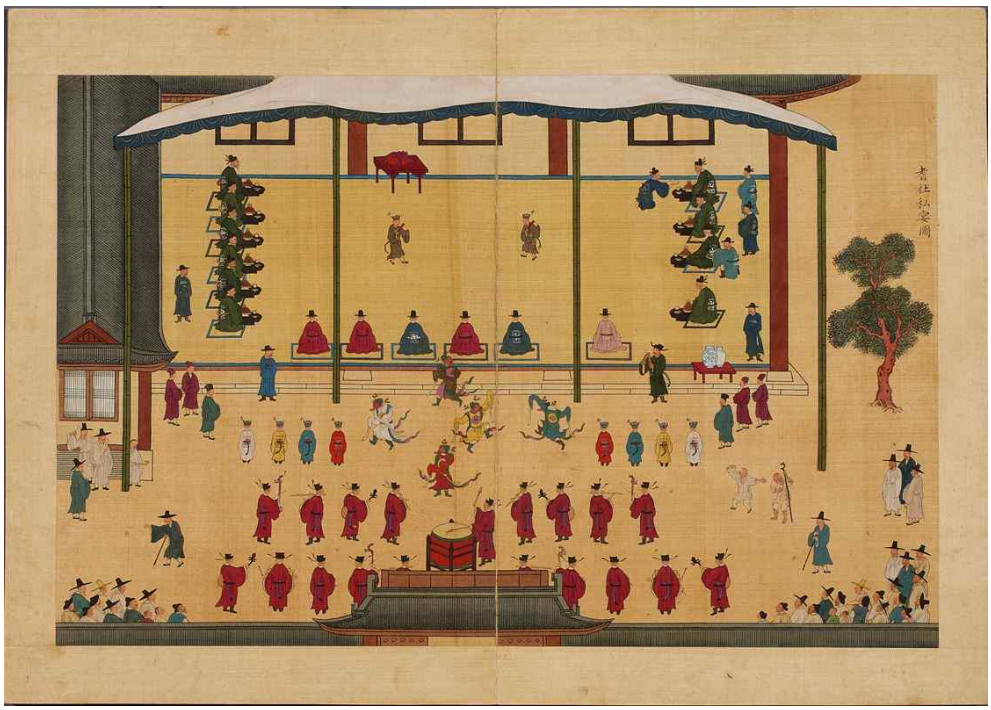
천수관음은 ‘천수천안관세음보살(千手千眼觀世音菩薩)’ 또는 ‘대비관음(大悲觀音)’이라고도 불리며, 『법화경(法華經)』, 『화엄경(華嚴經)』 등에 근거하여 11면의 얼굴과 40~42개의 큰 손으로 각기 다른 지물(持物)을 잡고 있고 이들 사이에 눈이 그려진 작은 손들이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된다.

이 불화는 오랜 세월로 인해 화면이 많이 변색되었으나, 바위 위에 놓인 연화좌(蓮華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관음보살과 화면 상단을 가득 채운 원형 광배(光背), 화면 아래에 관음보살을 바라보며 합장한 선재동자(善財童子) 등 경전 속 천수관음보살의 도상을 구현한 가운데 요소마다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필력으로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해 매우 우수한 조형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불화 중 현존 유일하게 알려진 천수관음보살도일 뿐 아니라 다채로운 채색과 금니(金泥)의 조화, 격조 있고 세련된 표현 양식 등 고려불화의 전형적인 특징이 반영된 작품으로, 종교성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첨부〕 지정 예고 사진

□ 국보 지정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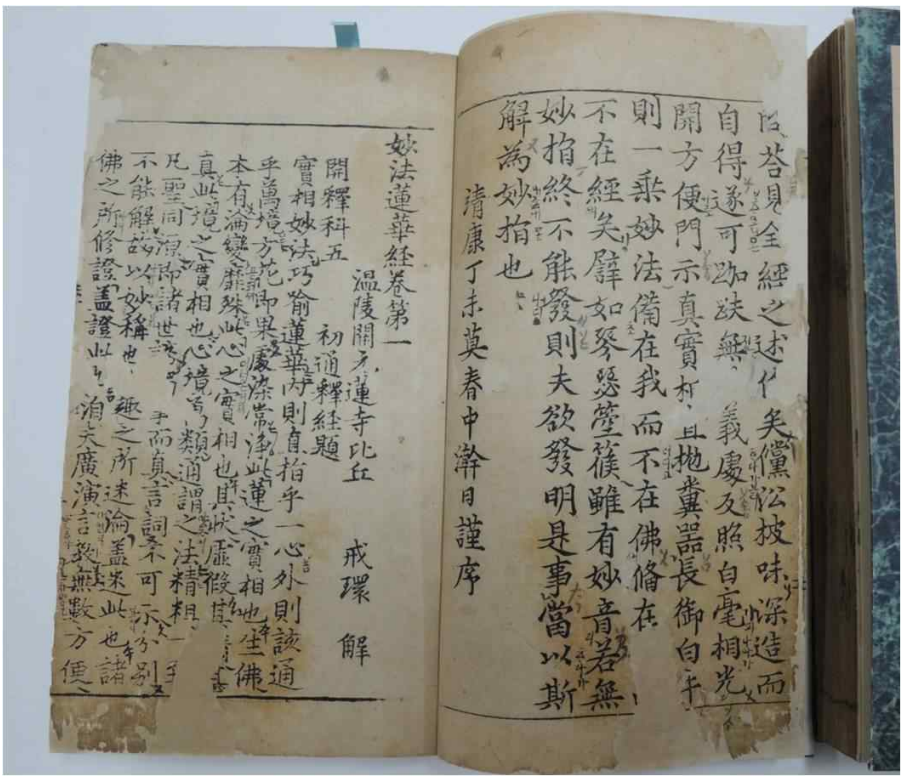


<기사계첩>-기사사연도

<기사계첩>-기로신 초상화(오른쪽: 이유, 왼쪽: 김창집)

□ 보물 지정 예고

<제진언집 목판>



妙法蓮華經卷第一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開釋科五
初通釋經題
實相妙法巧喻蓮華內則自指乎一心外則該通乎萬境方苑咸果處染常淨此蓮之實相也本有滿繕衆德此心之實相也其狀虛霞真此境之實相也心境類通謂之法精粗凡聖同源即諸世不能解故以妙稱也
而真言詞不可不別
佛之所修證蓋證此也趣之所述論蓋述此也諸消夫廣演言教無數方便
呂答見詮經之述作矣儻忽披味深造而自得遂可咄訣無義處及照白毫相光開方便門示真實相其拋棄器長御白牛則一乘妙法備在我而不在佛脩在不在經矣辭如琴瑟筌蹄雖有妙音若無妙指終不能發則夫欲發明是事當以斯解為妙指也
清康丁未莫春中澣日謹序

<묘법연화경>

<고려 천수관음보살도>